

성에 관한 기독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 동성애를 중심으로¹⁾

강상우 사회복지 CORAM DEO

논문 요약

본고는 오늘날 성에 관한 기독교의 주장이 속된 말로 씨아리가 왜 그렇게 잘 먹히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동성애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있어서 신앙과 본분에 있어서 정확 무오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성행위를 결혼관계에서 한 쌍의 부부남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생식(procreation, 再生産)과 더불어 성적 즐거움(pleasure, 快樂)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동성애는 바로 성행위의 대상과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신앙적 죄(sin)로 성적 일탈행위의 한 형태에 속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동성애 관련 모든 구절들은 반드시 반동성애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傳統主義的立場] 그리고 동성애가 신앙적 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게이리딩(Gay reading)과 퀴어 리딩(queer reading)이 만연하고 있다. 과거에 동성애와는 전혀 무관한 구절에 대해서도 친동성애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가 신앙적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1) 하자 있는 메신저(Messengers, or Speaks)들과 청중들(audiences)의 개인주의화된 성에 대한 태도, (2) 일관성이 결여된 성에 대한 과거 자세(stances)를, (3) 성이 과거 억압과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4) 기독교가 역사의 부정적 흑역사(dark chapter)의 간부로 이해되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주제어: 성행위. 생식. 성적 즐거움(快樂). 동성애. 성적 일탈행위.

1) 본고는 강상우(2022, 2021, 2020a, 2020b, 2017)의 글을 참조하였다. 구체적인 인용 표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I 들어가는 말

왜 개인의 신앙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일까?

기독교인에게 동성애는 죄다(전통주의 견해).²⁾ 물론 일부 수정주의자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전통주의자들과 같은 성경 읽기를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 해석공동체는 동성애를 종교적 관점에서 죄악으로 본다.(a sin=homosexual, 宗教的罪惡=同性愛) 그런데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이 사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인권과 관용이라는 시대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취급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 사회에도 여전히 종교나 신앙과는 무관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³⁾ 단순히 사회적 분위기가 친동성애적(pro-homosexuality)이기 때문일까? 물론 사회적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친동성애로 경도(傾倒)되어진 감도 있다. 그렇지만 친동성애적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오늘의 현실을 도매금으로 취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본고는 성에 대한 과거 기독교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성에 대한 기독교의 과거부터의 태도가 오늘날 동성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논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와 연구범위

2) 음선필 교수가 ‘동성애와 인권’(2020)이라는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본고에서 동성애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실제적인 ‘동성애 행위’, 즉 성적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자 한다.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동성애가 단순히 내면(內面)에 그치는 심리적 경향(끌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내면의 경향에 해당하는 끌림(성적 선호, sexual preference)이 심리학·의학의 관심 대상임에 반하여, 입법의 대상 또는 규율의 대상으로서 동성애는 ‘동성 간 성행위’를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성행위가 항문 성교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이다. 이러한 동성 간 성행위가 균형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동성애 개념에 해당한다. 이처럼 내면의 의식·인지·의지 자체만으로는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태로 외적으로 드러난 동성 간 성행위를 동성애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동성애자는 ‘동성 간 성행위자’, 이를 줄여서 ‘동성애 행위자’ 또는 ‘동성행위자’를 가리킨다.”(음선필, 2020: 3)

3) “New York City College 레빈(Michael Levin) 교수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동성애(homosexuality)를 반대한다.¹³⁾ 첫째, 신체 기능의 진화에서 볼 때, 동성애는 이성애에서 사용해야 할 신체 기관을 오용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다. 둘째, 자연 선택은 인간 존재에게 이성애를 제공했는데, 동성애자들은 사실상 이성애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행복하다. 셋째, 동성애의 사회적 승인이나 합법화는 어린이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부자연스럽고, 진화의 결과가 아니며, 유 기체나 종의 생존에 기여하지 않기때문에 비도덕적이다.”(최문기, 2003: 28); Levin, Michael (1993). "Why Homosexuality is Abnormal" in William H. Shaw, Social and Personal Ethics.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350-358.; Levin, Michael (1977). "Why Homosexuality is Abnormal", in Hugh LaFollette, (ed.). Ethics in Practice. Cambridge MA.: Blackwell. .233-241.

본고는 성에 관한 기독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본고는 이를 위해서 다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연구문제 1: [性行爲 對象과 目的] 합법적인 성행위의 대상과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同性愛 評價]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연구문제 3: [왜 이런 反應]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신앙적 죄라고 하는데도 왜 세상/일반인들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본고는 위의 연구문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성경이 성행위의 대상과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성경은 결혼 관계에 있는 한 쌍의 남녀부부 간의 성행위만을 합법적인 성행위로 인정받고 있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성행위의 목적이 생식(生殖, procreation 또는 再生産)과 더불어 성적 즐거움 즉, 쾌락(快樂, pleasure)에 있음에 대해서도 서술하고자 한다.[合法的 性行爲=結婚內 男女異性夫婦間 性關係, 性行爲 目的=生殖+快樂, 兩者 不可分 關係].⁴⁾⁵⁾ 과거 기독교의 역사는 성행위의 목적을 생식과 쾌락을 분리함⁶⁾으로써 많은 문제를 발생케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성행위=오직 생식’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성행위=오직 쾌락’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성경이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대상과 목적을 기준으로 할 때에 동성애가 성적 일탈행위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동성애 관련 구절에 대해서 전통주의자(pro-hetero)와 수정주의자들(pro-homo)를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동성애 관련 구절

4) 15세기 카르투스수도회의 디오니시우스는 분명히 말했다. “성교를 느끼는 쾌락은 방종한 것이 아니라 신께서 선사하신 자연스러운 것이다”(Bleyer, 2017: 203)

5) 최문기 교수는 성행위를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분을 한다. “인간 성애의 개인적 측면과 관련해서, 보수주의자는 생식(procreation) 또는 종족 번식에서 성 활동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자는 쾌락(pleasure) 및 그 쾌락을 향유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중도 입장을 표방하는 온건주의자는 종족 번식과 쾌락 양자를 수용하면서, 때로는 사랑(love)의 표현을 강조하기도한다.”(최문기, 2003: 21); “앞서 밝히기를 성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성은 생식을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생식 외에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신뢰의 표현이 있다. 사람들은 성을 나누며 정신적인 신뢰를 육체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느낀다.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안 다라는 표현을 부부관계에 적용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다름 아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변영인, 2006: 172).

6) “자녀출산의 의도가 결혼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녀출산의 의도가 결혼의 목적이라고 단정할 경우 결혼은 단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기 때문이다.”(권혁남, 2018b: 1070); “무어(Gareth Moore)의 자연법 논쟁에 대한 반론에 따르면, 성관계가 오직 생식을 위해 허용된다는 견해는 ‘경험적’ 혹은 ‘합리적’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경험적으로 볼 때 모든 성관계가 생식을 가져오지는 않을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볼 때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단지 항상 순응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무어는 본다.”(손호현, 2017: 147)

들을 이해할 때에는 콘텍스트(context)에 대한 이해 이전에 성경이 합법적으로 규정한 성행위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서 먼저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 누구도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가 성경이 합법적인 성행위의 대상과 목적에서 이탈한 행위이기 때문에 신앙적 관점에서 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회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다. 시쳇말로 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언급이 이 세상에서 시쳇말로 씨아리가 안 먹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II 성행위 대상과 목적 그리고 성적일탈(性的逸脫)의 한 형태인 동성애

1 성행위 대상과 목적

『성경』은 성행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합법적인 성행위의 대상은 누구일까? 「창세기(創世記)」에 대한 언급이 중요하다. 창세기라는 단어(genesis)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것의 기원(起源/始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1) 성행위의 대상(對象)(강상우, 2020b 미발표 글의 내용을 복사 붙이기함. CtrlC+CtrlV를 함)

(1) 성에 대한 「창세기」(창1:27-28; 2:20-25)의 가르침

성경은 성이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폴 D. 트립(Paul David Tripp)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당신과 성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를 무시한다면 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그분이 창조하셨기에 당신도, 당신의 성생활도 구분의 소유다. 이것은 당신 인생과 몸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연권이 없다는 뜻이다. 당신은 자율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사실 당신에게 자율성이 없다. 당신의 삶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 속해 있다. 알든 모르든, 성은 당신과 하나님을 연결한다.”(Tripp, 2014: 105).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7-28, 개정개역).

그렇기 때문에 성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가르침]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합당한 성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합당한 성행위란 결혼이라는 제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점이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성관계가 오직(only)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制度)이다.⁷⁾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다.(창1:27) 바로 뒤에 나온 구절(창1:28)에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미 결혼제도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다.⁸⁾ 결혼(結婚)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관계(性關係)를 이전에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이미 의식하셨던 것을 알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창1:28)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통한 자녀출산과 더불어 가정에서 사랑으로서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2:20-25 개정개역).

창세기 2장에서 이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담에게 배필(配匹)을 없다는 것을 인지하셨다. 동성의 배필이 아닌 이성의 배필(異性配匹)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다. 다시 말하지만 남자[同性]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것도 단순 여자가 아니라 그의 아내가 되는 여자와 합하게 하셨다는 점이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추인(神的追認, 마9:3-6)

7) “성이 결혼 안에서만 정당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결혼 자체가 정당성을 담보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 밖에서는 어떠한 성도 인격 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안에서의 성의 정당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변영인, 2006: 175)

8) 다음 참조. “창조세계는 인간의 문화적·사회적 노력을 포함하기에 인간의 삶-개인 생활, 사회생활, 문화생활-전체를 망라한다. 사회 제도들은 그냥 주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문화의 형성은 항상 하나님의 질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질서가 있기에 사회 제도들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성경은 문화적·사회적 제도의 하나인 결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친다(딤후4:3-4)”(Goheen and Bartholomew, 2011: 107).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2:24)라는 결혼에 대한 창조의 계명을 재 확인하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 할지니라.”(마19:6) 고 선언한다.(권혁남, 2018a: 1124)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 예수님은 구약의 창세기에 있는 결혼에 대한 규정에 대해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창세기의 결혼[性]에 관한 규정을 인정하셨음을 의미한다.[一種의 神的 追認⁹⁾] “3.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마19:3-6, <개역개정>)

후에 예수님이 결혼에 대한 이 구약의 정의를 지지하셨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분은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하며 시작하시고(창조주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분 자신의 해설로 결론을 맺으셨다(‘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 할지니라’, 마 19:6)(Stott, 2014: 520).

예수님이 창세기 내용의 인용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활동과 더불어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첫째,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둘째, 하나님은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라고 ‘말씀하셨다’. 셋째,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그들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나로 ‘짝지어 주셨다’. 여기에 예수님이 확인하신 세 가지 진리가 있다. (1) 이성의 성은 신적 창조물이다. (2) 이성 간의 결혼은 신적 제도다. (3) 이성 간의 정절은 신적 의도”라는 점이다.(Stott, 2014: 520-521)

9) 존 파이프(John Piper)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9절을 보십시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창1:27]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창2:24]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결혼이 인간이 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말씀은 결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Piper, 2013: 52).

(3) 결혼제도[性/性行爲]에 대한 텍스트의 함의(含意)

그렇다면 결혼제도에 대한 이 「창세기」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含意)는 무엇일까? 존 스토틀(John R. W. Stott) 목사님의 분석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통한 신비적 체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전 준비가 바로 결혼제도의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 몸이 되고 이 신성한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은 결혼의 구성 요소다.

“이러므로”(24절)

“남자가”

(단수는 결혼이 두 개인의 배타적 연합임을 나타낸다)

“부모를 떠나”

(공개적인 사회적 행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결혼은 애정으로 연합하는 헌신 혹은 언약으로,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것이다.)

“한 몸을 이룰지라도”

(결혼은 성관계에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 관계는 결혼 언약의 표상이자 봉인이고, 그에 대해서는 일찍이 어떠한 수치나 당혹의 그림자도 드리워진 적이 없다. 25절)(Stott, 2014: 520).

a) 결혼 관계 속에서만 정당한 성관계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성이 개방된 오늘날에는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모든 성적 결합은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성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결혼 관계^{10)·11)} 속에서 남녀부부관계 사이에서 이루어

10) 잭 O. 볼스윅과 주디스 K. 볼스윅(Jack O. Balswick & Judith K. Balswick)은 그들의 책 『진정한 성』(Authentic Human Sexuality: An integrated Christian approach)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섯 가지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1원리에서 제4원리까지는 창조를 다루고, 제5원리는 타락을, 제6원리는 구속과 회복을 다룬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저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외는 없다. 그래서 로널드 롤하이저(Ronald Rolheiser)는 다음과 같이 적었던 것이다.

… 우리의 성욕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보편성으로 끌어 올려진다 해도 단지 생명을 주는 두 가지 선택으로 제한될 뿐이다. 즉, 한 사람을 통해(일부일처제의 결혼 생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아무와도 자지 않는 독신생활 안에서) 한 사람만 포용한다. 이 두 가지 길을 통해 우리는 성욕을 한 차원 높게 열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 반면에 문란한 성관계에서는 아무도 포용할 수 없을 것이다.(Rolheiser, 2006: 240, 강조는 본 연구자).¹²⁾

데이빗 K. 포스터(David Kyle Foster)에게서도 같은 의미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브가

진정한 성의 원리

참조	1원리: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성에서 그리고 둘의 연합에서 확립된다. 2원리: 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차원에서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고안된 좋은 선물이다. 3원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성적 쾌락을 즐길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성은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가정 안에서 가장 잘 개발될 수 있다. 4원리: 성과 영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타락	5원리: 타락 이후 성은 왜곡되었으며 구속(救贖)받을 필요가 있다.
구속	6원리: 그리스도는 회복을 주시고 진정한 성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을 새롭게 하신다.

자료: Balswick & Balswick, 2009: 46-47 내용을 표로 작성함.

- 11) 다음을 참조. 필립 안시(Philip Yancey)의 지적이다. “『마음의 습관들』(Habits of the Heart)의 지은이는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 헌신된 크리스천 말고는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능력을 갖춘 이가 거의 없더라고 했다. 결혼을 사회계약으로 본다면, 그 관계는 주관적이고, 유동적이며, 얼마든지 새로이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례라고 믿는 경우,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Yancey, 2012: 128-129).
- 12) 로널드 롤하이저(Ronald Rolheiser)의 다음의 견해도 참조. “성행위가 성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며, 인간은 이를 통해 영원한 세상의 순수한 친구를 맞보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적 만남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고전적 신비가들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궁극적 합일을 기술할 때 성적 만남의 이미지로 묘사한다.”(Rolheiser, 2006: 227).; 다음도 참조 “결혼의 맥락에서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한 가지다. 성교는 한 몸이 되는 결혼에서 전적으로 긍정적 목적과 재생산, 기쁨,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창조된 선이다(예, 히13:4; 딤후4:1-5). 성적 연합은 결혼의 기본이 되지만, 결혼은 이번에는 아이코닉(iconic)이라고 불리는 것 중의 하나인 중요한 목적을 수행한다. 아이코닉(기독교의 다양한 전통 전통에서 가장 보편적이던)은 초월자에게로의 ‘창구’ 역할을 하는 만질 수 있는 물건이다. 성경은 결혼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엡5:22-33) 관계의 아이코닉 또는 지구상에서의 모델인 영적 진리의 예시라고 본다. 결혼은 성적 연합과 결혼서약의 공식적 교환으로 형성된다. 배우자와의 성적 연합의 관계는 새롭기 때문에 많이 어색하든지 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서적으로 명백해지든지 간에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을 끊임없이 재개하고 재확인하는 기능을 한다.”(Jones and Hostler, in Miller and Delaney, 2015: 181-182).

아담으로부터 취해졌기 때문에, ‘이러므로 남자가 …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창1:24)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성에’, ‘일부일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4-6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러한 구도의 중요성을 반복하셨다”(Foster, 2007: 85, 강조는 본 연구자).¹³⁾ 이는 팀 켈러(Timothy Keller)가 그의 인생의 짝과 같이 쓴 책에서도 볼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스도인의 성 윤리는 한 마디로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섹스는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Keller and Keller, 2014: 296)

b) 구체적 합의(合意)

결혼 관계 속에서 한 쌍(雙)의 남녀-이성 부부사이[異性夫婦間]에서만 이루어지는 정당한 성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i) 배타성(排他性): 절대적 배타성이다. 이는 일부다체제나, 일처다부제는 물론이요, 배타적이지 않은 오늘날의 부도덕적인 모든 성행위를 거부함을 의미한다. 쓰리섬(threesome)이나 갱방(gangbang), 스와핑(swiping), 그룹 섹스(group sex) 같은 종류의 모든 성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남자(a man) … 그 아내와(his wife)”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행위의 양(兩) 당사자가 모두 단수형이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14),15)} (ii) 공개성(公

13) 포스터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성애자들의 혼음, 간음, 일부다처, 동성애 그리고 게이의 결혼과 같은 행위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다. 그러한 것들은 인간의 속죄함과 궁극적인 운명을 밝히는 의미를 지닌 인간의 성적 관심 그리고 결혼과 같은 모든 것을 조롱거리로 만든다. 그것들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총체적인 일그러짐이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현재와 다가올 세대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발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거 것이다.”(Foster, 2007: 86).

14) 다음을 참고하자. 마이클 그리피스(Michael Griffiths)의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필자는 최근에 결혼한 여동생이 천국에 만일 결혼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일 수 없지 않은가라고 한 말을 기억한다. 이것은 C. S. 루이스가 바유로 들었던 어린 아이 얘기를 생각나게 한다. 그 어린 아이는 어른들은 같은 침대에서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거기서 같이 초콜릿을 먹기 때문이 아니냐고 질문했던 것이다. 마치 이 어린 아이가 초콜릿을 먹는 즐거움 이상을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도 결혼을 능가하는 기쁨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배타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천상적인 관계를 상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천상의 것을 상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도로서 존중하여 기독교적 공동체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맥락에서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의 완전한 성취는 오직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때에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기쁨을 초월하며 두 사람 사이의 배타적인 관계를 능가하게 될 천상적인 사랑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천상적인 것이다!”(Griffiths, 1992: 105).

15) 다음을 참조하라. “칸트(I. Kant)는 결혼은 ‘서로 성이 다른 두 사람이 일생동안 상대방의 성적 능력을 소유하기

開性): 공개성으로 은밀한 결합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사회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관계 속에서의 성적인 결합만을 의미한다. “... 부모를 떠나(leave his father and mother)” 공개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관계없이 예식(禮式) 등과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혼인신고와 같은 최소한의 법률적 절차를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혼과 무관한 성’(non-marital sex)을 배제한다. **(iii) 영구성(永久性)**: 우연한 만남을 통한 일시적인 결합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이는 실험적 동거(實驗的同居) 관계는 물론이요, 계약결혼(契約結婚)과 같은 것도 거부한다. “(그 아내와) 합하여([will] ... be united to [his wife])” 왜냐하면 이들의 성적 행위의 대상은 결혼 관계에서의 성경이 말하는 아내(wife)와 남편(husband)의 영구적(永久的)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순차적 일부일처(serial monogamy)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순차적 일부일처제는 실질적으로 순차적(順次的) 일부다처제(serial polygamy)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이다.(Ray, 2013: 158 참조) **(iv) 완전성(完全性)**: 마지막으로 완전성(肉體的完全性, 性器의相補性)이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the two will become one flesh)”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육체적 완전성을 의미하며, 더 좁은 의미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즉 남편과 아내 간의 성기관(性器官)의 상보성(性器間 相補性)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볼 때 동성애적 성적결합은 당연히 거부된다. 이는 또한 동물들을 상대로 한 수간(獸姦)에 대해서도 거부함을 의미한다.

2) 성행위의 목적(目的)

성행위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담과 하와는 생식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했을까? 생식할 수 없는 여성[完經女性]은 성행위를 하면 안 되는가? 출산과 거리가 먼 노년의 남녀는 성관계는 불법일까? 성행위는 오르가슴(Orgasm)과는 별개인가? 불임(不妊)에 대한 책임이 있는 남녀는 성관계를 할 수 없는 것일까? ‘가임(可妊) 불능=사제, 스님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아가(雅歌, Song of Songs)」 서와 「잠언」(Proverbs)¹⁶⁾의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온전히

위한 연합’이다. 로크(John Locke)는 사회가 결혼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가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에게 가정은 부부의 육체가 연합하여 서로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형성된다.”(Pateman, 2001: 238 재인용) Kant, I. (1887). *The Philosophy of Law*. trans. W. Hastie. Edinburgh: T & T Clark. Chapter second, section 24, 110.; Locke, John (1967). *The Treatise of Government*. ed. P. Lash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I. section 78.

16) 인간의 성생활의 신적 선물에 대한 이 뒤틀림과 대조해서 결혼의 끈과 보호 내에 있는 결혼행위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다. 이 기쁨은 잠언 5장 15-23절에서 가장 선명하게 계시된다.

1.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다(15절)
2.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16-17절)

영적으로만 해석/理解해야만 하는 것일까?

(1) 생식과 쾌락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8, <개역개정>; cf.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공동번역>)

3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고전7:3, <개역개정>, cf. ‘Husbands and wives should be fair with each other about having sex.’ <CEV>)
(…)

5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전7:5상, <개역개정>, <개역한글>)

5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고전7:5상, <표준새번역>; <새번역>)

5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고전7:5상, <공동번역>; <공동번역개정판>)

5 So don't refuse sex to each other(1 Corinthians 7:5a, <CEV>)

성행위의 목적은 무엇일까? 생식과 더불어 성적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⁷⁾ 후술(後述)하겠지만, 성행위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하나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것이다.¹⁸⁾

(2) 성행위의 대상과 목적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주는 함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상과 목적에서 벗어난 성행위는 비성경적이며, 합법적인 성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성경적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성적 행태(行態)라는 점이다. 앞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동성애가 성경적 의미에서 죄(sin)나 아니나의 문제도 성행위의 대상과 그 목적이 성경적 가르침에 합당하냐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他性行爲 判斷基準] 성행위에 대한 기준이라는 점은 또한 성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독신(獨身)의 경우도 성경은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우리의 기쁨은 반드시 우리의 배우자에게 있어야 한다(18-20절)

4.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응시에 노출된다(21-23절)(Kaiser, 2016: 266).

17) 반대로 진화심리학자들은 생식이 단지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한다. “인간의 성교가 지닌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기능이 무엇이든 잉태는 확실히 그 기능이 아니다. 잉태는 다만 가끔 발생하는 부산물일 뿐이다.(Jared Diamond)”(Ray, 2013: 189)

18) 결혼을 생식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재고에 대해서는 오승진(2015, 338-339) 참조하라.

[표: 성경적 성행위]

성행위 대상		성행위 목적	성행위 유형
결혼* 관계 내	한 쌍(雙)의 남녀(異性)	생식과 쾌락(성적 즐거움)의 조화**	성경적 성행위***

* 형식적인 결혼만을 의미하지 않고 다만 사회적으로 이들의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특정한 상황으로 인한 배타적이고 지속적인 사실혼 관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앞서 언급한 배타성, 공개성, 영구성, 완전성을 지닌 경우를 의미한다.

** 생식과 쾌락은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의 정도의 문제로 봐야 한다. 다만 극단적으로 어느 하나만을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 참고로 성경적 성행위에서 벗어난 것은 비성경적 성행위로 성적 일탈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경적 성행위=성행위-비성경적 성행위, 비성경적 성행위 > 성적일탈행위.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 강조된 적이 있는 극단적으로 생식만을 강조하는 성행위는 비성경적 성행위이나 그렇다고 해서 성적일탈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2 성경적 성행위의 기준과 동성애

1) 성적일탈(性的逸脫)의 한 형태인 동성애

동성애에 관한 연구를 보면, 텍스트에 중점을 둔 상태에서 동성애에 대해 언급한 성경 구절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에 앞서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성경이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성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성경적 성행위의 대상이나 목적이 무엇이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서 기술했듯이, 성경적 성행위란 결혼 관계[排他的 關係] 속에서 이성 남녀부부(男女夫婦)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고, 그 목적이 생식과 더불어 성적 즐거움을 추구함에 있다는 점이다. 이 기준을 동성애가 성경적 성행위에 해당한가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성경적 성행위 기준과 동성애]

	결혼 유·무	성행위 대상	성행위 목적	성행위 유형
이성혼(異性婚)	결혼 유	한 쌍(雙)의 남녀(異性)	생식과 쾌락(성적 즐거움)의 조화**	성경적 성행위
동성혼(同性婚)	결혼과 무관*	동성(同性)	생식과 무관 상대적 쾌락 추구	비성경적 성행위 성적 일탈행위

* 동성간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나라라고 할지라도 성경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간통

(姦通)의 경우와 비슷한데 간통이 실정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비성경적 성행위임과 동시에 성적 일탈행위에 해당한다.

** 이는 결혼관계에서 출산가능성을 배제한 성관계(sex without proliferation)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완경기 이후에도 여전히 성관계는 가능하고 불임부부 간의 성행위도 출산 이후의 피임을 통한 성관계는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성애, 또는 법적으로 인정된 동성결혼관계를 통한 동성애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동성이라는 성행위의 대상이 남녀관계 즉 이성 관계가 아닌 동성 관계라는 점에서 성경적 성행위의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성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생식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다. ‘동성애≠생식’이라는 도식은 극단적으로 성행위의 목적을 생식만으로 취급하는 이들에 의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성애≠생식이라는 극단적 도식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피임기구나 비아그라 등이 소비되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성행위가 생식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행위를 단지 생식으로만 환원시키는 극단적인 주장은 반동성애에 대한 설득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동성애가 생식과 별개라는 것 못지않게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성행위의 또 다른 목적의 하나인 쾌락에 대해서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는 동성애자들의 성행위의 상대방의 숫자¹⁹⁾—홍석천의 과거 발언을 확인하면 동성애 성적 상대방이 얼마나 되는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성애자들 중에도 이보다 더 많은 성적 상대를 가진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성적 대상들이 많다는 점이다—를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성애란? 성행위 대상=동성, 성행위 목적=생식과 거리가 있음+과도한 쾌락 추구. 이처럼 동성애는 성경적 성행위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동성애는 성경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비성경적이며, 동시에 성적 일탈행위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참고로 성경이 규정한 성행위의 대상과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성행위 행태를 [표]로 나타내 보았다.

19) 동성애 상대의 숫자가 많다는 현실 때문에 동성결혼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이들도 있다. 성공회의 주교 존 셸비 스폅(John Shelby Spong)이 그런 류의 사람이다. “성행위를 하는 관계는 독점적이어야 합니다. ... 성적 파트너가 여러 명인 것은 상처를 주는 일이고 헌신과 정직과 진실한 돌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Rudy, 2012: 134; Spong, 1988: 216) Spong, John Shelby (1988). Living in Sin: A Bishop Rethinks Human Sexuality. San Francisco: Harper.

20)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성애가 간음 등과 같은 성적 일탈행위의 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간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헌재 1990.9.10. 89. 선고 헌마82 결정[의] ... 반대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성 간의 성교는 간통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서종희, 2010: 118).

[표: 성행위의 대상과 목적에 따른 유형]

성행위 대상		성행위 목적	성행위 유형	비고
결혼 유	한 쌍의 남녀(이성)	생식과 쾌락(성적 즐거움)	일부일처제	성경적 성행위
결혼 유	이성	생식만 강조	과거 교부(敎父) 등의 해석 ²¹⁾	비성경적 성행위
결혼 무관	자신(自身)	쾌락만 강조	자위행위(masturbation)	아디아포라*** 비성경적 성행위/ 성적일탈행위(?)
결혼 유	여러 쌍 남녀	쾌락만 강조	스와핑, 그룹섹스	성적 일탈행위****
결혼 무	이성	쾌락만 강조	혼전성관계, sex without love	성적 일탈행위
결혼과 무관	혼성(混性)	쾌락만 강조	쓰리썸, 갱뱅, 그룹섹스.	성적 일탈행위
결혼과 무관*	동성	쾌락만 강조**	동성애(homosexuality)	성적 일탈행위

*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쾌락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생식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 아디아포라(adiaphora, ἀδιάφορα, ‘무관심한 것’ 을 의미)는 ‘선도, 악도 아니고, 명령받지도 않고, 금지되지도 않은 것’ 을 뜻한다.(<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94%94%EC%95%84%ED%8F%AC%EB%9D%BC>) 개인적으로 자위행위를 아디아포라로 본다. 그 누가 평생 동안 자위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자위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다만 오난 사례(Onan case)를 자위행위로 잘못 해석하고 생식과 금욕을 극단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자위행위를 죄악시 했었다. 자위행위로 과다한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로 인해 비성경적 성행위나 성적 일탈행위로 보기도 한다. 다만 자위행위를 대리 섹스(sex by proxy)의 한 형태로 이해하게 되면 포르노그래픽(pronography)의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

**** 성적 일탈행위는 큰 범위에서 비성경적 성행위에 해당된다. 비성경적 성행위>성적 일탈행위

2) 성경적 성행위 기준으로 동성애 관련 구절 바라보기(강상우, 2022; 아래에 나온 [표]와 각주들은 미출간 拙著, 『기독교와 동성애: 수정주의와 전통주의의 시선』에서 가져왔다)

동성애가 성경적 성행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하고

21) 히에로니무스는 특유의 거친 입담으로 일갈했다. “결혼이라는 속박이 가져오는 최대의 불행은 남의 욕정에 희생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경멸했고 특히 자신의 결혼을 혐오했으며 훗날 성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는 몬타누스(Montanos) 교파에 합류한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단언했다. “법은 결혼과 간통을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둘이 본질적으로 달라서가 아니라 위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Abbott, 2006: 82)

있는 동성애 관련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반동성애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게이 리딩(gay-reading)이 아닌, 안티게이 리딩(anti-gay-reading) 즉 수정주의자들의 관점이 아닌 전통주의자의 관점이라는 스탠스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구약성경과 관련된 동성애 관련 구절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소돔의 죄(창19: 1-11)과 레위기인과 그의 첩에 대한 기사(삿19:16-30)의 경우, 수정주의자들의 경우 야다(야다, יָדָא, yada, 창19:5)의 용례를 언급하면서 성적 함의가 없거나 불분명함을 주장함으로써 소돔의 죄를 성관계와 무관함을 주장한 확대하지 않음이나 불의 즉, 사회적 약자를 돕지 않음이나 집단적 성폭력(anal sex)을 통한 수치심 주기 등으로 해석한다. 전통주의자들은 수정주의의 이와 같은 해석을 비판하며 야다를 성적 함의로 보고 소돔의 죄를 동성간 [폭력적] 성관계의 요구로 본다.

[표: 수정주의와 전통주의 간의 구약 동성애 본문에 대한 해석 비교]

본문	수정주의 해석(Queer Reading, Gay reading)	전통주의 해석(Anti-gay Reading)
소돔의 죄 (창19:1-11) cf. 레위인과 그의 첩 (삿19:16-30)	야다(יָדָא, yada, 창19:5)의 성적 함의는 없거나 불분명함 '확대하지 않음=성관계와 무관함=소돔의 죄', '불의=사회적 약자를 돕지 않음=소돔의 죄', '확대하지 않음=수치심 주기= [집단적] 성폭력(anal sex)=소돔의 죄'	야다(יָדָא, yada, 창19:5)의 성적 함의를 지님 소돔의 죄는 동성간 [폭력적] 성적 관계의 요구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레18:22)과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레20:13)	'가증스런'(תּוֹעֵבָה, tow'ebah, 혹은 abomination, disgust)의 의미는 윤리적인 금 지와 무관한 제의적 규정 "여자와 동침함 같이"(미슈크베 이샤, mishkebe-isha, '여자의 눕는 것', מִשְׁכְּבֵי-אִשָּׁה א) 는 오늘날의 동성 간의 성관계와는 거리가 먼 성행위	'가증스런'(תּוֹעֵבָה, tow'ebah)의 의미는 성과 관련된 비도덕적/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칭 "여자와 동침함 같이"(미슈크베 이샤, mishkebe-isha, '여자의 눕는 것', מִשְׁכְּבֵי-אִשָּׁה א)는 성행위에서 수동적 자 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
기타 관련 본문 (신23:17-18; 왕상14:21-24; 15:12-14; 22:46-47; 왕하23:7; 욥36:14 참고)	케데شم(Qedeshim)은 동성적 성행위를 하는 성전의 남창을 지칭하지 않음	케데شم(Qedeshim)은 동성적 성행위 를 하는 성전의 남창을 지칭함

「레위기」에 기록된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레18:22)과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레20:13)의 해석의 경우에도 수정주의자들의 경우, '가증스런'(תּוֹעֵבָה, tow'ebah, abomination, disgust)의 의미에 대해서 윤리적인 금지와는 거리가 먼 제의적 규정으로 해석하거나, "여자와 동침함 같이"

(미슈크베 이샤, mishkebe-isha, ‘여자의 눕는 것’, מִשְׁכְּבֵה אִשָּׁה)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동성 간의 성관계와는 거리가 먼 성행위로 해석함으로써 레위기의 규정이 오늘날 동성애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전통주의자들은 먼저 ‘가증스런’(תוֹעֵבָה, tow’ebah)라는 단어가 성과 관련된 비도덕적/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여자와 동침함 같이”(mishkebe-isha, מִשְׁכְּבֵה אִשָּׁה)라는 구절의 의미를 성행위를 함에 있어서 수동적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구절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그 밖의 동성애와 연관되어있는 구약의 구절들(신23:17-18; 왕상14:21-24; 15:12-14; 22:46-47; 왕하23:7; 욥36:14 참고)에 대해서도 수정주의자들은 동성애에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 비해 전통주의자들은 동성애 관련 구절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케데شم(Qedesim, 聖娼, holy or sacred prostitution)의 해석에 있어서 수정주의자들은 동성적 성행위를 하는 성전의 남창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보는 데 비해 전통주의자들은 동성적 성행위를 하는 성전 남창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신약과 관련된 대표적 동성애 구절을 살펴보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동성애를 역리로 기술하고 있는 구절(롬1:24-27)과 하나님나라[天國]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로 동성애를 규정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구절(고전6:9)을 봐보자. 수정주의자들은 역리(逆理, παρα φύσιν, para physin, unnatural)를 이해할 때에 무절제한 난잡한 성관계, 퇴보적·착취적 성관계, 비정상적인 성관계(oral·anal sex), 미동사랑(pederasty) 등으로 해석함으로써 오늘날 동성애와 거리가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전통주의자들은 역리를 자연적 성교인 이성애에서 벗어난 성관계로 봄으로써 동성애와 긴밀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²²⁾

하나님 나라를 유업(遺業)으로 받지 못한 자로서의 동성애에 대한 규정(고전6:9)에 나오는 ‘탐색하는 자’로 번역된 ‘말라코이’(Malakoi, 단수 malakos)와 ‘남색하는 자’로 번역(개역개정)되고 있는 ‘아르세노코이타이’(arsenokoitai, 단수 arsenokoites)’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수정주의자들은 ‘말라코이’(탐색하는 자)를 방종하는 자(Helminiak), 무절제한 남색가, 여성성을

22) 이경직 교수는 동성애 관련된 로마서 본문에 대해서 동성애 옹호자들과 반대자들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이경직, 2003)

[표: 수정주의자들과 전통주의자들의 로마서 1장 24-27절 해석 비교]	
수정주의자들의 주장	전통주의자들의 주장
무절제한 정욕을 비난	착취 관계와는 무관
우상숭배의 결과	죄의 증상이 아니라 개인적 죄
기독교의 타락교리 때문에 자연법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음	현재 상태는 자연법 상태가 아님
동성애 금지는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명령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음

나타내는 사람(effeminate), 선전매춘을 하는 소년(qedesim) 등으로 해석하는가 하며, ‘아르세노코이타이’(‘남색하는 자’)에 대해서는 남창(male prostitutes)(Boswell), 음탕하고 방자한 남성(Helminiak), 경제적 수탈자, 불경한 남색가(pederast) 등으로 해석함으로써 오늘날 동성애와는 거리가 먼 규정임을 주장한다. 이에 비해 전통주의자들은 말라코이(malakoi, μαλακοὶ)와 아르세노코이타이(arsenokoitai, ἀρσενοκοῖται)는 오늘날 동성애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라코이는 수동적 동성애자(defenders, ερομενος, ερωμενος)를 지칭하며, 아르세노코이타이는 능동적 동성애자(offenders, erastes, εραστης)를 의미한다고 본다.

[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대한 수정주의와 전통주의 해석]

본문	수정주의 해석	전통주의 해석
역리로서의 동성애 (逆理, παρα φύσιν. para physin, unnatural)(롬1:24-27)	오늘날 동성애나 윤리와는 전혀 무관	오늘날 동성애를 지칭하고, 윤리적 규정
역리(逆理)란 무엇인가?	무절제한 난잡한 성관계/ 퇴보적·착취적 성관계/ 미동사랑 (pederasty) 비정상적인 성관계(oral-anal sex)/	자연적 성교인 이성애에서 벗어난 성관계
하나님 나라를 유업(遺業)으로 받지 못한 자로서의 동성애에 대한 규정(고전6:9)	말라코이(malakoi, μαλακοὶ)와 아르세노코이타이(arsenokoitai, ἀρσενοκοῖται)는 오늘날 동성애하고는 거리가 멀다	말라코이(malakoi, μαλακοὶ)와 아르세노코이타이(arsenokoitai, ἀρσενοκοῖται)는 오늘날 동성애 행위의 금지
말라코이(malakoi)는 누구인가?	방종하는 자(Helminiak) 무절제한 남색가 여성성을 나타내는 사람(effeminate) 선전매춘을 하는 소년(qedesim)	수동적 동성애자(defenders, ερομενος, ερωμενος)
아르세노코이타이(arsenokoitai)는 누구인가?	남창(male prostitutes)(Boswell) 음탕하고 방자한 남성(Helminiak) 경제적 수탈자 불경한 남색가(pederast)	능동적 동성애자 (offenders, erastes, εραστης)

동성애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신약 본문에 대한 수정주의자와 전통주의자 간에 해석/이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베드로후서」에 언급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벤허2:6-10)에 대해서도 구약의 창세기의 사건을 연장선에서 해석이 되는데, 수정주의자들은 오늘날 동성애와 무관하게 해석하고, 전통주의자는 동성애로 이해한다. 「디모데 전서」의 ‘남색하는 자’(아르세노코이타이)의 해석도 고린도전서(6:9)에 해석과 일관성 있게 수정주의자들은 오늘날 동성애와 거리가 먼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반해, 전통주의자들은 아르세노코이타이를 동성애 관계에서 능동적 동성애자(offenders, erastes, εραστής)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유다서」의 ‘다른 육체’(Sarkos heteras, 유1:7-8)의 해석에 대해서 수정주의자들은 동물이나 천사와의 성관계나, 인간 동성애와는 거리가 먼 자로 해석한다. 물론 전통주의자들은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표: 동성애 관련 신약 본문에 대한 전통주의자와 수정주의자의 해석 비교]

본문	수정주의 해석	전통주의 해석
다른 육체(sarkos heteras) (유1:7-8)	동물이나 천사와 성관계, 인간 동성애와는 거리가 먼 자	동성애자도 지칭
남색하는 자(arsenokoitai) (딤후1:10)	오늘날 동성애와 거리가 먼 자	동성애자 지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벤허2:6-10)	멸망이 동성애와는 무관함	멸망이 동성애와는 관계 있음

참고로 과거에는 동성애와는 전혀 무관하게 다루어졌던 구절들에 대해서도 친/동성애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무리한 동성애적 읽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짜로 기괴한 해석(queering)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친동성애자들은 어떻게든지 동성애를 정당화하려고 지나치게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퀴어리딩(queer-reading)을 시도하는 구절에 대한 전통주의자와 수정주의자의 해석 비교]

본문	수정주의 해석	전통주의 해석
아브라함과 롯 (창11장 이하)	삼촌과 조카 사이의 소년애? (Eve Sedgwick)	삼촌과 조카 사이
노아와 함의 저주 (창9:20-27)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동성애적 성폭력 (Robert A. J. Gagnon)	술 취한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냄
다윗과 요나단 ²³⁾ 그리고 사울 왕	동성애적 관계/동성애적 삼각관계(다윗-요나단, 다윗-사울 왕) (Daniel A. Helminiak ²⁴⁾ , Kamal Salibi, Tom Horner, Theodore W. Jennings Jr.)	우정(다윗-요나단)과 총성(다윗-사울 왕)
나오미와 롯	레즈비언 관계	며느리와 시부모

(룻기)	(Mona West, Theodore W. Jennings Jr.)	
백부장과 그의 종 (눅7:1-10)	젊은 애인(toy body) (Ronald E. Long)	주인과 종의 관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13:23)	동성애 관련성 의심 (Theodore W. Jennings Jr)	동성애와 무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별거벗은 젊은이(막14:51-52)	동성애 관련성 의심	동성애와 무관
고자(鼓子)에 대한 말씀 (마19:10-12)	동성애자와 관련성 의심	동성애와 무관 (말 그대로 鼓子)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 (요11장)	레즈비언 관련성 의심	자매 관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고후12:7)	동성애적 성적 지향(게이 바울?) (John Selby Spong)	인질과 같은 질병

3 ‘동성애는 신앙적 죄’라는 교회 공동체의 주장이 이 사회에서 설득력이 안 먹히는 이유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합법적으로 말하는 성행위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남녀부부 관계에서의 성행위이다. 그 안에서는 생식과 성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만이 합당하다. 사회에 교회 공동체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신앙적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씨아리가 전혀 먹히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과거 반동성애적인 성경 구절로 읽어졌던 본문들에 대해서 친동성애적 읽기가 시도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과거에는 동성애와 전혀 무관한 구절들에 대해서 친동성애적인 기이한 읽기가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러는 것일까? 성 소수자의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했으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인으로서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a sin)라고 믿는다는 신앙의 표현을 단지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는 혐오라는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가

23) 김종윤 (2004).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한 한 연구”. 『신학논단』. 37. 137-182. 참조.

24) “<사무엘상> 16장 21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힐 수도 있다. ‘다윗이 사울에게 왔고 그[다윗]가 그 앞에서 발기했을 때 그[사울]은 그를 무척 사랑했다’(When David came to Saul and he[David] had an erection in his presence, he[Saul] loved him greatly)(185) 나중에 예언자 사무엘(Samuel)이 내놓고 사울에게 다윗과 정사를 벌인 일을 비난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항의했다. ‘분명히 뒤에서 찔러 넣은 행동은 죄가 되오’(Surely, thrusts in the rear are on offense, 삼상 15:23)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율법이 금하는 남성 간 항문 성교를 가리키는 언급이다.”(Helminiak, 2003: 186)

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성과 관련해서 교회 공동체의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과거의 분위기라면 교회 공동체가 동성애에 대해서 신앙적인 죄라고 한다면 최소한 ‘아 교회는 신앙적 차원에서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는가 보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

1) 하자(瑕疵) 있는 메신저들(defective Messengers/Speakers)과 청중들(Audiences)의 개인주의화된 성: “참견 말고 당신들이나 잘 하세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한 자들을 오히려 감싸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반역하는 것이다. (신현우, 2016: 128)

먼저 하자 있는 메신저²⁵⁾들 때문이다. 메시지를 붕괴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메신저의 도덕성 등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한다. “메시지가 반박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처럼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다. 문제는 동성애가 신앙적 의미에서 죄라고 외치는 스피커들 자체에 많은 하자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신도들에게 뻘스 내리면 진정한 성도라고 말한 뻘스 목사라는 분이 동성애가 죄라고 소리친다. 결혼을 앞둔 여성도에게 구강성교/성적 접촉을 요구한 스피커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 세상들의 상식 수준에도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면서 동성애가 죄라고 소리친다. 그것도 매우 과격하고 거칠게 세상 사람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극단적 표현을 하면서 말이다. “제리 폴웰은 차갑게 잘라 말한다. ‘동성애자는 살살이 수색해 병든 동물처럼 격리해야 합니다.’”(Rudy, 2012: 116 재인용; New York Native [August 14, 1983]. 9) 교회 공동체 안의 지도자적인 목회자들에 의한 성범죄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SNS나 대중매체

25)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총회세계선교회(GMS) 임원회가 합당한 철차도 밟지 않고 선교사 안식년 기금에서 무려 10억 원을 빼내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지만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유아무야(有耶無耶)되어 버렸다. 이 교단은 2010년에도 아이티 지진구호기금으로 30억 원을 거둬들였지만, 목적대로 쓰지 못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또 은퇴 목회자들의 퇴직 이후 은급을 위한 기금 180억 원이 총회결의로 부결된 납골당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되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교회 리더로 추앙받았던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해당 교단과 관계자들은 마땅히 징계해야 할 전 목사 사건 진상을 조사하여 처벌하기는 커녕, 감싸고 도는 추태를 연출하고 있다. 무려 32억 원의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정삼지 목사(제자교회)도 교단은 한동안 수수방관하다가 법원의 실현 결정을 보고 난 후에야 비로소 목사 면직 등 징계를 내렸지만, 이미 교회는 찬반 교인으로 나뉘어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진 후다.”(구교형, 2013: 330); 최근 보도에 의하면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김삼환 목사의 비난 설교가 보도되었다. 이한길, “세습반대는 “마귀” “총살감”...김삼환 목사 비난 설교”. <JTBC뉴스> (2022.09.22.); <http://v.media.daum.net/v/20220922202705110?f=o>

등을 통해 많이 접한다.²⁶⁾²⁷⁾ 메신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이들 메신저들에게 많은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청중들이 어떻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메시지가 맞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메신저는 메시지에 대해서 외면하게 만들고 만다.[매체(message vehicle)는 메시지인가?²⁸⁾] 미국의 성적 일탈행위를 한 목회자들 중에는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폭로 되어진다. 심지어 자신의 동성애적 행위를 회개하고 탈동성애(ex-gay)를 했다고 선언했던 목회자들 중에는 자신들의 탈동성애적 주장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여전히 동성애적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들도 발생하기도 했다.(탈-탈-동성애 ex-ex-gay) 동성애 목회자들의 ex-gay, ex-ex-gay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성행위의 한 형태라는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내보내게 된 것 같다. “목사라는 사람도 이러니 성령의 능력도 어찌지 못하는 것이 동성애인 거구나!” 기독교 내의 전향치료에 대한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기사들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전향치료=동성애 핍박=비상식적 기독교’²⁹⁾라는 부정적 도식이 세상을 향해 더 퍼지게 된 것이다. 가톨릭의

26) “미국 하원의장을 지냈으며 대단히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인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는 세 번 결혼했고, 그 밖의 파트너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 그럼 전국복음협회의 전(前)회장인 테드 헤거드[Tedd Haggard]는 일부일처제를 실천했는가? 그는 남창과 섹스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대형 교회의 전도목사인 얼 폴크[Earl ‘The Abomination’ Paulk]는 일부일처를 실천했는가? DNA검사 결과, 그의 ‘조카’가 사실은 그의 아들임이 밝혀졌다. 그가 제수씨와 섹스를 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다.(그 아들은 조카의 자격으로 지금 그의 교회를 물려받는 중이다)”(Ray, 2013: 63, [] 본 연구자 첨가). “전국복음주의연합의 테드 헤거드 회장은 남성 매춘부와 함께 필로폰을 하다가 발각되었다. 근본주의 성직자들이 그를 위해 기도한 뒤, 그의 동성애가 ‘치유’되었다는 선언이 이어졌다.(그러면 필로폰 중독도 치유되었을까?) 현재 그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새 교회를 맡아 번창하고 있다.(Ray, 2013: 305 각주)

27) 동성애 때문에 종교적인 테러가 일어난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그 종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케리 노블(Kerry Noble)의 사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케리 노블(Kerry Noble)에 따르면, 캔서스 시티에 위치한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와 신도들을 파괴할 임무를 띠고 그가 보내졌다. 회중석에 앉아 폭탄의 타이머를 작동시키고 떠나려는 순간에, 그는 자신이 하려고 의도하는 일을 매우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았다.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찢어진 몸뚱이들과 떨어져 나간 팔다리들 뿐이었다’고 노블은 회상한다. 그는 휘청거리며 일어나서 폭탄이 담긴 서류가방을 아직 자신의 손에 든 채 교회 밖으로 나왔다.”(손호현, 2017: 140 재인용; Juergensmeyer, 2003: 238; Noble, 1998: 146); Juergensmeyer, Mark (2003). *Terror in the Mind of God: The Global Rise of Religious Viol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Noble, Kerry (1998). *Tabernacle of Hate: Why They Bombed Oklahoma City*. Prescott, Ontario: Voyageur.

28) “매체가 메시지이다’(McLuhan/Fiore 1967) 혹은 ‘매체가 메시지에 영향을 준다’(Schmitz 2004)라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텍스트에서 전달 수단 및 방식은 전달 내용과 의미를 제약하기도 하고, 서로 보완하기도 한다.”(조국현, 2010: 277) 조국현 (2010). “텍스트언어학에서 텍스트기호학으로-텍스트-이미지 복합기호의 분석”. 『독일문학』 . 115. 275-301.

29) 참고로 김학이 교수는 다음과 같은 기술은 동성애에 대한 과거 핍박은 기독교적 가치보다는 그리스로마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처벌은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들 치세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되었다(기원후 342년) 그러나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었다. 법은 ‘항문을 제공하여 남성성을 부인하는 자를 처벌하였기 때문이다. 항문에 삽입한 자가 아니라 삽입당한 자가 처벌되었으니, 이는 수동적 성교를 비난하던 그리스적 사고의 형법화로 이해해야 한다.”(김학이, 2014: 154)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수도원도 마찬가지였다. 수도원의 화장실에서는 낙태가 행해졌으며, 태아는 벽에 짓눌려져 있었다. 그야말로 ‘성반신은 성모, 하반신은 창녀’였다.”(福田和彦, 2011: 157) “수도원에서는 동성애도 널리 퍼져 있었던 것 같다. 11세기에 피에트로 다미아니(Pietro Damiani, 1007-72)는 사제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지도해야 할 자들과 관계를 가진다고 고발했다. 이브 드 샤프트르르는 교황 특사 및 교황 자신에게 보고하기를 투르 대주교 라울이 프랑스 왕 필리프 1세를 설득하여 장이라는 자를 오를레앙 주교로 임명했다고 하면서 이 장이라는 자가 사실은 대주교의 연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자는 투르 대주교와 그의 죽은 형제,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방탕한 자들과의 불명예스러운 친밀함 때문에 프랑스의 모든 도시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당한 비열한 자입니다.’”(Verdon, 2008: 146). “요한네스 13세(John XIII)가 간통에다 근친상간까지 저지른 것이다. 또 1171년 캔터베리 대수도원장으로 선출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마을에서만 17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이 정도는 약과였다. 12세기에 리에주(Liege) 주교는 무려 65명의 자식을 두었다가 끝내 파직되었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경우는 인노켄티우스 8세(Innocentius VIII)였다. 그는 ‘사생아’를 잔뜩 낳은 것을 자랑하다가 정직하다는 이유로 용서받았다.”(Abbott, 2006: 185-186) “자크 로시오(Jacques Rossiaud)에 따르면, 디종 시에 있는 사창가와 목욕탕에 출입하는 고객의 20%가 성직자였다.”(Richads, 1999: 54) 오늘날에도 사제들이 성도와 미성년인 소년들에게 성적 폭력을 행하는 것이 세계 여기저기서 폭로되기 시작한다. 그와 관련해서 동성애 관계 소년들에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기사들이 떠도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실이 이런데 누가 이들의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메신저들의 삶의 자세/행위가 메시지의 가치를 스스로 붕괴시키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불량한 메신저로 인해서 그가 전한 메시지의 진의(眞意)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청중들의 눈과 귀를 막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메시지와는 전혀 상반된 다른 내용을 지지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꼴도 보기가 싫은 저들은 빼고, 일구어언하는 저들의 주장만은 빼고, 또는 기독교만 빼고, 즉 ‘Anything But Christianity’[과거 미국에서 ABC, Anything But Clinton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가 극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이다. ‘동성애=신앙적 죄’라는 작용(作用)은 ‘동성애≠죄’라는 강력한 반작용(反作用)으로 작동(作動)하게 된다. 과거 기독교가 행한 잘못된 행위/해석들을 끄집어 들인다. 마녀재판이나 인종차별 등이 성경의 오해에서 온 것처럼 동성애도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것도 성경의 오해가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친동성애적 게이 리딩(Gay reading)에 대해서 동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과거 기독교가 이런저런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 동성애에 대한 판단 또한 잘못된 해석/주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준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친동성애자들이—이들 친동성애자들의 학력은 더욱더 이들의 친동성애적 주장에 신뢰감을 더해주기도 한다—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주장의 목소리가 커진다.[내부총질로 작동한다] 기독교 내의 동성애를 종교적인 범죄/죄라고 하는 해석은 잘못된 이해

라고까지 하는 주장도 존재하니, 세상 사람들은 너희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을 보니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해석이 혹시 잘못된 해석이 아닌지에 대해 더 의심하게끔 한다. ‘과거처럼, 동성애에 대한 해석도 혹시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여’하고 반문/疑問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성애=죄라는 메시지를 듣는 오늘날 일반인들의 성에 대한 태도도 메신저뿐만 아니라 메신저의 메시지에 대해 의심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일반인들은 ‘개인주의화된 성’에 도취해 있다. 성이라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오늘날에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성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 의도/計劃하신 성이 될 수는 없다. 성에 대한 기준은 ‘개인’이다. 그것도 그 개인의 현세적인 즐거움/快樂에 있는 것이다.(Tripp, 2014: 118. 참고로 Tripp은 ‘실용적 나중심 현재주의’[PMP, practical me-istic present-ism]를 언급하고 있다. Tripp, 2014: 264) “동성애를 통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그저 이것이 좋은데 그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하는 것이다. DSM(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을 내보이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의사들도 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무슨 자격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냐고 적대적으로 반응한다. 성적 자율성을 강조한 동성애 문화와 오늘날 자유를 강조하는 개인주의화된 성문화와 결을 같이 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본질적으로 퀴어들은 윤리의 구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전위적인 성적 표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한다. 섹스를 선하게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생식, 상호보완, 연합과 관련이 없으며, 오직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우리 서로가 원하고 동의하는 것과 관련 된다. 그래서 퀴어 문화의 많은 양태들은 다른 성적 실천들, 예컨대 가학피학성애, 포르노그래피, 소년애에 관심을 크게 보이고, 모든 경우에 도 착적이고 혼란스러운 비전통적인 것에 우호적이다.(Rudy, 2012: 211)

2) 일관성이 결여된 성에 대한 과거의 태도: “과거 역사에서 왜 동성애는 죄가 되기도 하고 허용되기도 했나요?”

동성애 등과 관련된 성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뽑을 수 있는 것으로는 성과 관련해서 일관성이 결여된 과거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같은 행위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서 다른 적용이 있었는가 하면 신분에 따라서 다른 처벌이 있었던 것이다. ‘일관성의 결여=강제성 결여=종교적 절대 준수 사항에 대한 의문’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다.

독신(獨身)에 대해서도 교회 공동체가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장 클로드 볼로뉴(Jean Claude Bologene)의 『독신의 수난사(Histoire du Celibat et des Celibataire)』의 컬러 그림이

실린 앞장을 보면, 독신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른 그림이 실려진 것을 볼 수 있다.(Bologene, 2006) 하나는 씨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그린 12세기 미세화인 콘라드 데 히르사우(Conrad de Hirsau)의 「처녀의 거울」(1190년, 본 라인국립박물관)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는 독신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씨(種子) 뿌린 것의 100배를 받는 자는 바로 순결을 지킨 처녀들이다. 과부들은 60배를 거두며, 유부녀들은 30배를 거두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독신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다른 그림인 착색 판화인 「교리문답 벽화」(19세기, 라 본느 프레스)를 보게 되면 소천(召天)을 앞둔 두 남자에 대한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아내와 성직자들에게 둘러싸인 신에게 영혼을 바치는 독실한 남자(既婚男)가 다른 한쪽에는 독신자로 자유 연애를 표현한 그림 사이에서 홀로 죽어간다. 독신자의 영혼은 악마가 가져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未婚男/獨身男)

처녀성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였다.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던 소수의 신도들에게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능했다. ... 그리스도교인들은 결혼과 금욕, 순결의 전통적인 서열을 뒤바뀌어 생각하게 되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중세 시대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인데,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씨앗 하나를 뿌려 100개를 거둬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60개와 30개를 거둬들이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의 설명을 삼갔지만 중세에는 이것을 사회적 신분 구별로 보았을 것이다. 즉 순결을 지킨 사람은 100배로 보상받을 것이요, 금욕하는 자(과부, 사제, 성 관계를 삼키는 부부)는 60배로 보상받을 것이며, 결혼한 자는 30배로 보상받을 것이다. 아무리 결혼의 지위를 회복시켰다 하더라도 상대적일 뿐이었던 것이다. 뒤바뀐 서열은 히에로니무스(Eusebius Hieronymus, 4C 말) 이후 정착되어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Saint Thomas Aquinas)가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에서 확립했다.(Bologene, 2006: 82)

기독교의 스탠스가 독신과 결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을 뿐만 아니라, 독신/처녀성에 대한 극단적인 긍정적 이해/評價는 성행위의 목적에서 쾌락을 제거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³⁰⁾ 쾌락을 성행위에서 제거함으로 인해서 생식만을 유일한 성행위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참고로 기억할 것은 ‘생식=단지 성행위 목적’이라는 환원주의적 평가는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 앞서 [표: 성행위의 대상과 목적에 따른 유형]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성적 일탈행위는 아니지만 비성경적 가르침으로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인 것이다. “동성애란 개념은 적나라한

30) 빈 레인 폭스에 따르면, “순결을 미화하고 재혼을 탐탁히 않게 여김으로써 교회는 유산상속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누릴 수 있었다.”(Abbott, 2006: 122 재인용: Fox, 1988: 310) Fox, Robin L. (1988). Pagans and Christian. San Francisco: Harper & Row,

‘섹스’ 개념이다. 그것은 쾌락을 위한 섹스이다. 또한 그것은 섹스를 위한 섹스이며, 섹스 그 자체이다. 그것은 획일적인 대중적 성애인 출산과 가족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고 개별화된 섹스이다. 따라서 동성애는 본질적으로 ‘음란’하다.”³¹⁾(Hawkes, 2005: 242; Simpson, 1994: 144 참조) ‘성행위 목적=생식’이라는 잘못된 극단적인 논리는 동성 간의 성행위를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동성애=생식 결여=잘못된 성행위’, 성행위의 목적이 온리(ONLY) 생식이라는 잘못된 논리가 동성애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논리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불임부부의 성관계는 잘못된 것인가? 생식과 거리가 먼 가임기 이후의 노년의 성관계는 불가능한가? 동성애 성행위를 생식의 결여로 인해 잘못된 성행위라는 논리가 논리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동성애=생식 불가능’이라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줄어들게 한다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독신에 대해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던 것처럼 동성애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지역과 대상에 따라서 동성애는 서로 다른 대우/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³²⁾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성규범은 현실이라는 장벽에 막히게 되고 현실과의 타협으로 인해 차악(次惡, lesser evil)과 차선(次善)의 선은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 theory)에 서게 되고 이는 지속적으로 현실과의 타협을 낳게 된다. 그래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양보하고, 또 무엇 때문에 이런 규정을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동성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춘을 허용하자’라는 식의 논리나 ‘사제들이 귀족들의 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매춘과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식의 논리로 말이다. 체면 때문에 물론 밖으로 대놓고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전개되어진 것이다.

리처드 트렉슬러(Richard Trexler)가 피렌체의 매춘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그것은 젊은이들을 이성간 성관계의 환희 쪽으로 유도함으로써 동성애 행각을 퇴치하려는 당국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15세기 피렌체 시 당국은 역병과 젊은이의 만혼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동성애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Richards, 1999: 188; Trexler, 1981: 983-1015 참조)³³⁾

더욱이 아기를 낳지 않는 비역질은 인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악몽을 꾸게 하고 하느님의

31) Simpson, M. (1994). *Male Impersonators: Men Performing Masculinity*. London: Cassell.

32) “17세기까지 동성애자의 이미지는 대개 상류층의 난봉꾼(rakes)으로서, 일종의 ‘세련된 악’(beau vice)으로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화되지는 않았다.”(이소영, 2007: 377)

33) Trexler, Richard (1981). "La Prostitution Florentine au XVe siecle: patronages et clientele" *Annales* 36. 983-1015.

화를 불러 벼락을 맞을지 모르는 상태로 내몰지만, 그와 달리 매춘은 이성 간의 성생활, 그러므로 잠재적으로 아기를 낳는 성생활을 부추킨다고 당국은 생각했다.(Matthews-Grieco, 2014: 229-230)

교황 식스토 4세(Sixtus IV, 재위 1471-1484)는 동성애자였을 뿐 아니라 방탕하고 허영심이 가득한 데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금전욕이 대단했던 인물이다. ... 동성애가 중세 수도원에서는 비밀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헤르켄 우엘러 교수는 전한다. 그러나 처벌받은 동성애자는 대부분 서민이었고, 지체 높은 지도층 계급이 극형을 당한 것은 미미했다. 신분에 따라 처벌도 달랐던 것이다”(양태자, 2011: 64, 68)

1051년경, 성 페트루스 다미아니[Pietro Damiani, 1007-72]는 『고모라 서(書)』라는 긴 논문을 저술하여 남자 간, 특히 성직자 간의 성관계를 집중 공격하였다. 그는 이 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는 성직자들이 자신이 영적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과 관계를 한다고 고발하고, 상당수의 성직자들이 교회의 처벌을 모면하려고 동성애를 하는 다른 성직자에게 고해를 하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 죄악은 다른 어떤 죄악보다도 불순하다는 것이다. 그는 교황 레오에게 동성애의 죄를 저지른 모든 성직자를 교회에서 추방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Verdon, 2000: 66 [] 본 연구자 첨가)

일례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매춘을 억누른다면 주체할 수 없는 욕정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Markun, 1926: 12] 12세기의 아퀴나스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를 따라 매춘의 유용성을 인정했다. 특히 그는 매춘을 동성애라는 비자연적 악을 피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했다.[Brackett, 1993: 276](임병철, 2009: 72-73; Abbott, 2006: 14 참조. [] 본 연구자 첨가)³⁴⁾

역사적으로 동성애자를 죄라고 믿는 자는 이들이 동성애 행위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역과 시간과 사람/신분에 따라 때로는 죄로 인한 사형과 처벌을 받는가 하면 때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니,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게 된 것이다. 특히 같은 동성애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권력[왕이나 귀족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취급되어진다는 것이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34) Markun, Leo (1926). Prostitution in the Medieval World. Girard. KS: Hadelman-Judius Company.; Brackett, John (1993). "The Florentine Onesta and the Control of Prostitution, 1403-1680," Sixteenth Century Journal 24(2). 273-300.

3) 억압과 통제의 도구로 사용된 과거 성에 대한 인지: “과거 자위행위/마녀사냥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어요?”

16세기 유럽 황야에 불어 닥친 마녀사냥은 성의 광기였다.(福田和彦, 2011: 160)

이 구절[고전7:8-9]³⁵⁾을 비롯한 여러 구절들을 근거로 가톨릭교회는 성직자들의 금욕을 정당화했다. 그 결과 2천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아동성애가 자행되고, 성직자들이 정부(情婦)를 두고, 신부와 수녀가 사생아를 낳고, 교황의 사생아와 ‘조카들’ 여럿이 바티칸에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억압된 성은 묘한 데서 터져나오는 성향이 있다. 수백 년 동안 가톨릭과 개신교 당국자들은 남색, 마녀, 동성애, 간통, 수간 등의 혐의로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을 처형했다.(Ray, 2013: 219)



성경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 성적 일탈행위들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오늘날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성경은 자위행위에 대해서 침묵한다. 심지어 오늘날 학자들은 “2세 이상의 어린이는 성적 흥분[sexual excitement]을 느낄 수 있기에 만지거나 자위행위 등의 성적인 즐거움을 찾기 시작한다”고 한다(조두영, 1999) 성행위의 목적을 극단적 생식으로만 본 이들이나, 금욕적 사고³⁶⁾에 매몰된 이들은 자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이 세상에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 인간이 있는가?”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해 보라.) 자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 심한 고통을 가했다. 자위 방지를 위해 성기(性器)에 ‘고리 끼우기’(bouclement)와 같은 비이성적(非理性的)이면서도 가학적(加虐的)인 조치를 하기도 한다.[그림은 ‘위키백과’에서 가져왔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L._Milton_%22Pathology..._Spermatorrhoea%22;_urethral_ring_Wellcome_L0020377.jpg

“자위를 비난하던 17세기의 의사들은 윗세대에서는 남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고리 끼우기’(bouclement) 즉 음경포피에 고리를 끼워 발기가 되면 고통스러워서 순결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Bologene, 2006: 192)³⁷⁾ 심지어는

35) “8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고전7: 8-9, <개역개정>)

36) “모튼 에슬린(Morton S. Eslin)이라는 학자의 지적에 따르면, ‘그리스도교가 이 세상을 금욕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둘러싼 세상이 그리스도교를 금욕적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었다.”(Abbott, 2006: 84-85; Bullough, 1976: 160 참조) Bullough, Vern (1976). Sexual variance in Society and History. New York: John Wiley & Sons.

37) ‘고리 끼우기’(infibulation, infulate, 봉쇄하다).

성행위 체위까지도 규제했다. 선교사 체위(missionary position)로 알려진 ‘정상위’만을 합법적인 체위로 규정해 놓고 그 밖의 체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간섭하기 시작했다. “종교의 자유로움과는 상관없이 국가가 정상 체위 이외의 섹스를 모두 중죄로 규정해 놓은 경우도 있다. 부부가 성적인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다.”(Ray, 2013: 26)

정상위로 딱 한 번만 하시오.(Bleyer, 2017: 210ff)

교회는 올바른 성교 체위를 규정해 놓았다. 유일하게 인정된 체위는 오늘날 ‘선교사 체위’(missionary position, 폴리네시아 원주민사회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이 애용하는 후위 삽입 체위보다는 이 체위를 더 선호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역주)라 알려진 체위, 즉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 있으면서 얼굴을 맞대는 선교체위였다. 그 외 다른 모든 변종 체위는 금지되었다. 향문성교 체위는 7년 간의 참회 고행에 처해졌다. 여성 상위 체위에 대해서는 3년 간의 참회 고행에 처해졌다. 왜냐하면 그러한 체위는 남자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자연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강성교와 후위 삽입 성교에 대해서도 참회 고행 기간이 3년이였다. 후위 삽입 성교 체위는 그런 식으로 교접하는 말과 개처럼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향문 성교와 구강 성교 체위는, 비록 꼭 꼬집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피임을 목적으로 이용되었던 듯하다. 참회 규정서에 따르면 부부간이라도 성관계는 밤에만 가져야 하며 그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만 옷을 벗도록 권장하고 있다. 성관계는 본질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로 간주되었음이 분명하다.(Richards, 1999: 46; 조찬선, 2000: 318 참조)³⁸⁾

더 나아가서는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날까지 규정하여 성을 규제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한 과거의 행위들은 과거의 기준—그것이 강압적인 것이었는지 맹종에 의한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에는 그리 문제 삼지 않는 것들이었지만, 오늘날의 기준과 시각에서는 폭력적으로 보이게 되었고,

38) “동물계에 그런 체위가 없는[선교사 체위] 것이 인간을 짐승과 구분하는 중요한 표시 중 하나라면 그 대신 인간에게 후배위가 있는 것도 동물적인 행동의 잔재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윤리학자들에게는 그러한 성교 유형은 동물적 본능의 표출로 여겨졌다. 고로 후배위는 악마적이거나 도착적인 것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그럼으로써 동물은 여전히 음란한 악마로 표현되었다.”(Roudinesco, 2008: 212); “11세기 독일교회법학자인 보롭스의 부르하르트가 저술한 『법령집』은 결혼에서의 과오에 대해서 상당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전통과 레위기에 기록된 금기를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은 아내나 다른 여자와 개처럼 뒤에서 결합(후배위)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빵과 물만으로 10일간 고행해야 한다. 당신은 아내가 월경을 할 때 결합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빵과 물만으로 10일간 고행해야 한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출산 후에 피에서 깨끗해지기 전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그녀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던 날 만큼 고행해야 한다. 또한 그 기간에 당신이 아내와 결합을 했다면 당신은 빵과 물만으로 20일간 고행해야 한다 ...’”(조찬선, 2000: 318)

오늘의 관점에서 ‘성적일탈 행위자들에 대한 폭력=반인권적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더욱더 과거의 폭력적인 행위들은 인권과는 거리가 먼 행위로 비추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성애를 행했다는 이유로 죽인다고 동성애를 행했다는 이유로 화학적 거세를 했다고 그것이 오늘날의 상식에 있어서 말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동성애의 피해자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문학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불행한 삶이 주목되었고, 암호해독기인 이니그마(Enigma)를 만든 컴퓨터 학자인 앨런 M. 튜닝(Alan M. Turing)의 죽음의 원인이 주목되어서 진다. 록밴드 퀸의 메인 보컬 프레디 머큐리(Freddie Mercury, Farrokh Bulsara)의 생애가 영화—「보헤미안 랩소디」(2018)—가 됨으로서 동성애자들의 삶에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동성과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친동성애자들은 세(勢) 늘리기를 시도한다. “유명한 누구도 누구도 동성애자였다.”는 식으로 동성애자들을 발굴(?)하기 시작한다.(강상우, 2017 참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많은 철학자나 유명인 등이 동성애자들로 호명된다.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으면,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똑똑하다면 동성애가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일반인들에게 가지게 한다는 점이다. 명성과 부나 학력이 동성애를 침묵하게 만들고 만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를 종교적인 의미의 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역사에서 동성애자들을 다루는/대우하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간음한 여인을 다루었던 사례가 동성애자를 다루는 기독교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본다.

4) 역사의 부정적 사회문제의 간부로 취급되어 버린 기독교: “홀로코스트나 노예제도처럼 동성애에 대해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요?”

사회적 공신력을 잃고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편만해져 있는 오늘날 종교 지형에서 기독교는 ‘과거 역사의 모든 잘못된 결과들의 원인에 대해 간부로 취급’되어진다는 것이다. ‘모든 과거 문제의 원인은 기독교다’는 식의 논리가 전개된다. 기독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던 신무신론자들이 기독교/종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프레임의 하나가 ‘역사적 문제의 원인=기독교/종교’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흑역사(dark chapter)로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도매금으로 모두 기독교 탓을 한다. 십자군 전쟁(The Crusade)도, 마녀사냥도, 인종차별도,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반유대주의(Holocaust) 등도 모두가 기독교에 責任(이)/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독교도 어느 정도—사례(事例)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책임이 있겠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절대적으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기독교라는 극단적 환원주의적 평가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강상우, 2020a; 강상우, 2021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외부의 일반인들은 ‘이 모든 것의 책임은 기독교’라고 이해/主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사회에 퍼져 있는 것은 아마도 ‘근대화=서구화=기독교화’라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1904)나, 리처드 H. 토니(Richard Henry Tawney)의 『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1926)의 영향으로 인해서 ‘서구 사회=자본주의 사회=기독교 사회’³⁹⁾라고 인지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오늘날 부의 불평등을 가져온 자본주의의 병폐는 곧 기독교의 병폐로 인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성신학자들과 여성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제기된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문제점=기독교의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의 남성(?) 하나님 아웨(YHWH)로 인해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의 병폐가 고착화되었다는 식의 설명/인식을 낳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성/페니스/ 팔루스/를 초월하신 분이신데도 말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기저에는 서구중심의 역사관과 학문관, 즉 ‘역사의 중심=서양’, ‘주류 학문=서양 학문’이라는 평가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사적 문제(흑역사)의 원인=기독교’라는 도식의 우세한 종교 환경에서 친동성애자들은 기독교의 흑역사에 동성애의 문제를 끼워 넣는다(일종의 “돼지비계 끼워 넣기”[larding] 전략을 사용한다, Darnton, 2004: 68 참조). 기독교 흑역사의 한 사례가 동성애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죄/부정적으로 취급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를 죄로 취급하는 것이 곧 과거 흑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핍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참고로 Baker v. Nelson 사건(1971년)에서 동성애 결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사용한 것이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한 Loving v. Virginia 사건(1967년)이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자면 인종 간 결혼의 반대가 차별로 잘못된 것인 것처럼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인종 간 결혼을 차별한 사례처럼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였던 것이다. 성공 여부가 관계없이 이런 식의 논리를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사용한다는 점이다.(오승진, 2015: 328.; Baker v. Nelson, 291 Minn. 31, 191 N.W.2d 185.; Loving v. Virginia, 388 U.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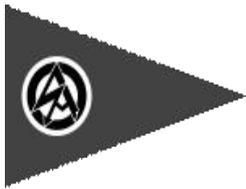
참고로 인류 최악의 사건 중의 하나인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의 반유대주의를 기독교와 관련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기독교가 반유대주의 정서에 어느

39) “베버와 동시대인 리처드 토니는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에서 16, 17세기의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은 프로테스탄트 때문이 아니라 광범위한 경제혁명의 효과로 보았다. 훗날 칼뱅주의가 자본주의를 수용한 것은 사회적 변화에 타협한 결과이며, 점차 선한 크리스천은 경제적 인간과 동일시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개신교가 자본주의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베버의 주장과 달리, 토니는 경제적 성장에 따라 기독교의 경제관이 착종된 것으로 보았다.”(이숙진, 2016: 85-86, 3번 각주)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반기독교적 일부 진영에서는 히틀러가 유신론자로 그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주장한다. 기독교적 세계관/가치를 지닌 히틀러가 홀로코스트의 주범이듯이, ‘기독교=홀로코스트’라는 환원적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신무신론의 좌장격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가 자신의 책, 『만들어진 신』 (The God Delusion)에서 히틀러의 종교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923년 뮌헨에서 히틀러는 이런 연설을 했다. “맨 처음 할 일은 우리 조국을 유대인들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누군가가 그랬듯이 독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Bullock, 2005: 96] 존 톨랜드(John Toland)는 『아돌프 히틀러: 전기 결정판』에서 ‘대학살’ 당시 히틀러의 종교관을 이렇게 설명한다. “로마 교회의 계급 구조를 몹시 혐오했음에도 그는 그곳의 명망 있는 일원으로서, 유대인이 신의 살해자라는 가르침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 따라서 단지 신의 복수하는 손 역할을 하는 것이었기에 그는 양심의 가책 없이 절멸을 시도할 수 있었다. 잔인하지 않게 감정의 개입 없이 실행하는 한.”[Toland, 1991](Dawkins, 2007: 415, [] 본 연구자가 추가)40)

도킨스는 히틀러의 연설과 존 톨랜드의 책의 내용을 통해서 ‘히틀러, 유대인(신의 살해자), 십자가(기독교)’를 상호 연결시킨다. 히틀러의 종교가 홀로코스트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다. 동성애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뿐



만 아니라 장애인들이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처형한 것도 사실이다. 홀로코스트 희생자 중의 하나가 동성애자들인데 동성애자였던 돌격대(SA: Sturmabteilung, SA 일반삼각기는 ‘위키백과’에서 가져왔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A_Allgemeiner_Wimpel.svg) 참모장인 에른스트 림인 림

(Ernst Röhm)을 하인리히 힘러(Heinrich Himmler)를 통해서 숙청한 ‘장검의 밤(Nacht der langen Messer, 1934년 6월 30일)’에 대해서도 같은 도식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치는 동성애에 대한 가차 없는 투쟁을 선포했지만, 나치당의 행동 조직인 돌격대의 수장으로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에른스트 림(Ernst Julius Röhm)이 동성애자였다.”(김학이, 2014: 21) 히틀러에 의해서 제거된 림은 정치적 이유에서 제거되었다. 그런데 림의 성적 정체성이 동성애자는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림이 동성애자였다는 성적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그래서 ‘히틀러, 림(동성애자). 살해’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히틀러의 반동성

40) Bullock, A. (2005). Hitler: A study in tyranny. London: Penguin.; Toland, John (1991). Adolf Hitler: The definitive biography. New York: Anchor.

애적 신앙이 동성애자 에른스트 림을 살해했다는 냄새를 풍기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치적 자료로 유대인 못지않게 동성애자들도 홀로코스트로 인해 살해되었다는 식의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연구자들 중에는 동성애를 자본주의와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동성애에 대한 억압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지닌 독특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가족제도는 성을 계급사회 속에 통합하는 데 언제나 가장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의 지위가 (생산에서 분리된 사생활이라는 독립된 영역으로) 변하자, 이전 모든 사회와 다른 새로운 섹슈얼리티 관계와 의미가 생겼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동성애자 의식과 동성애자 억압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독특한 현상이다. 이전 사회도 분명 동성 관계나 동성 관계를 한 사람들을 처벌했다. 그러나 사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특정 사람을 다르게 규정하고(이 때문에 그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했다). 이런 차이를 빌미로 억압하고 처벌하는 상황은 산업혁명 이후에야 생겨났다. 그러므로 동성애자 억압에 맞서는 투쟁은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고 자본주의가 왜곡한 성과 성 역할을 바로잡는 투쟁이다. 여기서 핵심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Carlin in Carlin and Wilson, 2016: 106)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Max Weber and Richard Henry Tawney)과 앞의 자본주의 사회의 동성애 탄압으로 서로 연결 지은다. ‘자본주의 사회의 동성애 탄압, 자본주의 =기독교 영향받음, 동성애 탄압=기독교’라는 이해로 넘어가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동성애 탄압의 원인이 단지 동성애의 생식 결여로 인한 노동력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일까? 과거 기독교 성행위의 목적 생식이라는 극단적이었던 과거 기독교의 모습과 데자뷰(deja vu)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동성애에 대한 핍박을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에 대한 顛倒/도전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자연적 이치에 대한 도전이 남성 지배의 근거를 흔들게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주장했듯이, 남근(페니스)과 남성권력(팔루스)이 견고히 결합되어 있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성교하는 남자의 가시화는 남성 지배 사회의 근간을 흔든다. 페니스와 팔루스가 분리되면 남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김학이, 2014: 293; Bourdieu, 2003: 159-160 참조)⁴¹⁾ 동성애에 대한 핍박이 동성애가 남성 지배 사회의 근간을 흔든다고 보는 이들/여성주의

41) Bourdieu, Pierre (2003). 『남성 지배』. 김용숙 역. 동문선.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남성중심적 가부장제를 고착화시킨 이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남자=남성중심적 가부장제 강화’(‘신이 남자라면 남자가 신이다, If God is male, male is God’, Mary Daly). 동·성애=남성중심적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 고로 동성애 핍박=남성중심적 가부장제를 강하게 지지하는 세력인 기독교’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동성애에 대한 핍박에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단지 기독교(Anything But Christianity)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기독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흑역사의 간부로 취급되어지고 만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 일반인들은 귀를 막게 하여 기독교의 메시지에 거부반응을 갖게 하는 것이다.

III 나가는 말

1 요약하기

성경은 성행위를 결혼 관계에서 한 쌍의 부부남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생식과 더불어 성적 즐거움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동성애는 바로 성행위의 대상과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신앙적 죄(a sin)로 성적 일탈행위의 한 형태에 속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동성애 관련 구절들은 반드시 반동성애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동성애가 신앙적 죄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친동성애적 해석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반동성애로 해석된 부분을 친동성애적으로 해석하거나 과거에는 동성애와 전혀 관계없는 구절로 여겨졌던 본문을 친동성애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의 입장에서 동성애가 신앙적인 죄/성경이 죄라고 말한다고 하면 왜 일반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1) 개인주의화된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진 청중들(audiences)은 동성애에 대해 전하는 하자(瑕疵) 있는 메신저(Speaks)들의 메시지에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너나 잘 하세요?”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2) 일관성이 결여된 성에 대한 과거 태도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과거 역사에서 왜 동성애는 죄가 되기도 하고 허용되기도 했나요?”라는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3) 성이 과거 억압과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자위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어요?”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4) 기독교가 역사의 부정적 사회문제(흑역사, dark chapter)의 간부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홀로코스트나 마녀사냥처럼 동성애에 대해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어요?”라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2 그렇다면 설득력이 조금이라도 먹히게 하려면

성에 관한 기독교의 주장이 씨아리가 먹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성에 대한 기독교의 주장이 씨아리가 어느 정도 먹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신실한 메신저를 통한 일반 사회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순화된 언어로 동성애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에 대해서 일관성을 지닌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집단(In-group)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치리(治理)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을 가한 목회자들에 대해 개(個) 교회나 총회 등의 차원에서 세상도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이다. 외부인들의 시각에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이다.(인간은 그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다.)

참고문헌

- 강상우 (2022). 『기독교와 동성애: 수정주의와 전통주의의 시선』. (미발행 저서)
- 강상우 (2021). “십자군 전쟁에 대한 재고: 제1차 십자군전쟁의 원인 중심으로”. <춘계 학술대회>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3485>
- 강상우 (2020a). 『참 거시기한 변명』. 파주: 한국학술정보.
- 강상우 (2020b). “성에 대한 기독교 태도: 역사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기독교의 성에 대한 태도”. 1-26 (미발표 글)
- 강상우 (2017). “동성애자들의 ‘세(勢, [數]) 불리기’에 대한 재고”. <기독교학문학회> (통권 34호) <https://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2885>.
- 구교형 (2013). “16장. 교단과 총회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개인의 소망을 꿈꾼다.”. 강영안 외 공저 (2013).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325-341.
- 권혁남 (2018a). “격변하는 성문화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성찰: 폴리아모리 문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9(3). 1117-1128.
- 권혁남 (2018b). “동성간 결혼문제에 대한 비평적 논의”. 『인문사회21』. 9(2). 1063-1072.
- 김학이 (2014). 『나치즘과 동성애: 독일의 동성애 담론과 문화』. 제1판2쇄. 서울: 문학과지성사.
- 변영인 (2006). “기독교 복음주의적 접근으로서의 성(性)교육”. 『복음과상담』. 6. 168-199.
- 서종희 (2010).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동성혼”. 『圓光法學』. 26(2). 109-148.

- 손호현 (2017). “동성애와 신학적 인권—토마스 아퀴나스의 성(性)의 신학을 중심으로”. 『神學思想』. 177. 139-167.
- 신현우 (2016). “제1부. 제3장. 동성애의 원인과 해결: 성경과 과학의 진단과 처방”.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용인: 킹덤북스. 99-141.
- 양태자 (2011). 『중세의 뒷골목 풍경』. 서울: 이랑.
- 오승진 (2015). “동성결혼의 권리: 미국의 사례와 국제인권법의 동향”. 『法學論叢』. 39(3). 325-347.
- 음선필 (2020). “동성애와 인권”. 『교회와 법』. 6(2). 142-173.
- 이경직 (2003). “로마서에 나타난 동성애” 『기독교신학저널』. 4. 211-239.
- 이소영 (2007). “동성애혼인에 대한 법적 개입의 딜레마와 가족이데올로기 해체”. 『법철학연구』. 10(1). 375-404.
- 이숙진 (2016). “깨끗한 부와 거룩한 부: 후기자본주의시대 한국교회의 ‘돈’ 담론”. 『종교연구』. 76(2). 81-115.
- 임병철 (2009). “르네상스 피렌체의 매춘여성과 매춘정책” 객차섭·임병철 엮음 (2009). 『역사 속의 소수자들』. 서울: 푸른역사. 66-91.
- 조두영 (1999). “성(性)생활과 성기능장애”. 『정신신체장애』. 7(1). 10-25.
- 조찬선 (2000). 『기독교 죄악사(상)』. 서울: 평단문화사.
- 최문기 (2003). “성 윤리의 논변 비교”. 『윤리연구』. 52(1). 19-39.
- 후쿠다 카즈히코(福田和彦) (n.d). 『섹슈얼리티 性문화사』. 임명수 역 (2011). 서울: 어문학사.
- Abbott, Elizabeth (2000). A History of Celibacy. 이희재 역 (2006). 『독신의 탄생』. 서울: 해냄.
- Balswick, Jack O. & Judith K. Balswick (1999). Authentic Human Sexuality: An integrated Christian approach. Downers Grove. 홍병룡 역 (2009). 『진정한 성』. 초판3쇄. 서울: IVP.
- Bleyer, Alexandra (2015). DRUM PRÜFE, WER SICH EWIG BINDET: Eine kleine Geschichte der Ehe. Salzburg-Wien: Résidenz Verlag. 한윤인 역 (2017). 『결혼의 문화사』. 서울: (주)재승출판.
- Bologene, Jean Claude (2004). Histoire du Celibat et des Celibataire. 권지현 역 (2006). 『독신의 수난사』. 서울: 이마고.
- Carlin, Norah (1989). and Colin Wilson (1995).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이승민·이진화 공역 (2016). 서울: 객칼피. Norah Carlin, "The roots of gay oppression" International Socialism 42. (Spring 1989)[“1부. 동성애자 억압의 근원”, 7-122]와 Colin Wilson,

- Socialists and Gay Liberation. (Bookmarks, 1995)[“2부. 마르크스주의와 동성애 해방”, 123-208]을 번역한 것이다. Carlin, Norah (1989). *The Roots of Gay Oppression*. London, Chicago and Melbourne: Bookmarks. 심인숙 역 (1995).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서울: 책갈피)에서 전에 출판되었다.
- Darnton, Robert (1995). *The Forbidden Best-Sellers of Pre-Revolutionary France*. W. W. Norton. 주명철 역 (2004). 『책과 혁명: 프랑스 혁명 이전의 금서 베스트 셀러』. 서울: 길.
- Dawkins, Richard (2006). *The God Delusion*. London: Bantam. 이한음 역 (2007). 『만들어진 신』. 파주: 김영사.
- Foster, David Kyle (2001). *Sexual Healing*. Ventura, CA: Regal Books. 문금숙 (2007). 『성의 치유』. 서울: 순전한나드.
- Goheen, Michael W. and Craig G. Bartholomew (2008). *Living at the Crossroad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윤종석 역 (2011). 『세계관은 이야기다』. 서울: IVP.
- Hawkes, Gail (1996). *A Sociology of Sex and Sexual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임인숙 역 (2005). 『섹슈얼리티와 사회』. 서울: 일신사.
- Helminiak, Daniel A. (2000).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millennium edition. NM: Alamo Square Press. 김강일 역 (2003).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서울: 해울.
- Kaiser, Walter C. Jr. (2001). *The Old Testament Document: Are They Reliable & Relevant?* Downers Grove, IL: 김정봉 역 (2016). 『구약성서 다큐먼트: 구약성서의 신뢰성과 적합성』. 서울: 세움과비움.
- Keller, Timothy with Kathy Keller (2011). *The Meaning of Marriage: Facing the Complexities of Commitment with the Wisdom of God*. 최종훈 역 (2014).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서울: 두란노. Kathy Keller는 이 책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6장. 우리 부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다름’의 복을 누리라(228-259.)”를 직접 썼다고 한다.
- Matthews-Grieco, Sara F. (2005). “제3장. 앙시앵레짐 시대 유럽의 몸과 성욕”. Arasse, Daniel, Roy Porter and Georges Vigarello et al (2005). *Histoire du Corps*. Paris: Editions du Seuil. 주명철 역 (2014). 『몸의 역사 :1: 르네상스부터 계몽주의 시대까지』. 서울: 길. 193-258.
- Miller, William R. and Harold D. Delaney eds. (2005). *Judeo-Christian Perspectives on Psychology: Human Nature, Motivation, and Change*. 김용태 역 (2015). 『심리학에서의 유대-기독교 관점』. 서울: 학지사. Stanton L. Jones and Heather R. Hostler, “6장. 인간성에서의 성의 역할”,

167-190.

- Piper, John (2009). *This Momentary Marriage*. Wheaton, Ill: Crossway. 이은이 역 (2013). 『결혼 신학』. 5쇄. 서울: 부흥과개혁.
- Ray, Darrel W. (2012). *Sex & God: How religion distorts sexuality*. 김승욱 역 (2013). 『침대위의 신』. 서울: 어마어마.
- Richards, Jeffrey (1991). *Sex, Dissidence and Damnation: Minority groups in the middle ages*. London: Routledge. 유희수·조명동 공역 (1999). 『중세의 소외집단: 섹스·일탈·자주』. 서울: 느티나무.
- Rolheiser, Ronald (1999). *The Holy Longing: The search for a Christian spirituality*. 유호식 역 (2006). 『聖과 性的 영성: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탐구를 위하여』. 서울: 성바오로.
- Roudinesco, Elisabeth (2007). *La Part Obscure De Nous-Memes, Une Histoire Des Pervers*. Paris. 문신원 역 (2008). 『악의 쾌락: 변태에 대하여』. 서울: 에코의서재.
- Rudy, Kathy (1997). *Sex and the Church: Gender, Homosexual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Christian Ethics*. Beacon Press. 박광호 역 (2012). 『섹스 앤 더 처치: 젠더, 동성애,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변혁』. 파주: 한울.
- Stott, John R. W. (2006).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Grand Rapids, MI: Zondervan. 정옥배 역 (2014).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개정4판. 서울: IVP.
- Tripp, Paul David (2013). *Sex and Money: Pleasures That Leave You Empty and Grace That Satisfies*. Wheaton, IL: Crossway Books. 이지혜 역 (2014). 『돈과 섹스』. 서울: 아바서원
- Verdon, Jean (2005). *Le Moyen Age Ombres et Lumieres*. Paris: Editions Perrin. 최애리 역 (2008). 『중세는 살아 있다: 그 어둠과 빛의 역사』. 서울: 길.
- Verdon, Jean (1996). *Le plaisir au Moyen Age*. Librairie Academique Perrin. 이병욱 역 (2000). 『중세의 쾌락: 서양 중세 사람들의 사랑, 성 그리고 삶의 즐거움』. 서울: 이학사.
- Yancey, Philip (2012). *Open Windows*.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최종훈 역 (2012). 『단단한 진리』. 서울: 포이에마.